

## ♣ 검은 땅 소식 (103) ♣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25절)

###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셨는지요? 늘 기도해주시는 사랑의 힘을 입고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남수단은** 이상 기후로 2주간 폭염주의보를 내려 열악한 환경에서 열사 위험요소가 있어 전 학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43도~45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불볕더위로 한증탕을 방불합니다. 지난 해 4월에 발발한 수단 내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무슬림들이 특별하게 지키는 거룩한 달 라마단이 시작되어도 휴전을 거부하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단 난민이 이집트, 차드, 남수단등 주변국가로 피난을 가고 있고, 수단 상공을 지날 수가 없어 모든 비행기 행로는 더 돌아서 가야만 하고, 남수단의 석유를 수단으로 보내는 송유관을 사용할 수 없게되어 남수단의 경제는 그야 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물가 폭등으로 국민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수단은 현지화(SSP)와 달러(\$)가 시중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은행환율과 시중 환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난 12월 시중 환율이 1\$=1,000SSP였는데, 오늘은 1\$=2,400SSP를 찍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 단위의 화폐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거리에 사람들도 받기를 거절합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에서 석유는 1L=3,100SSP로 교통비도 많이 인상이 되어 시민들의 이동에도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저런 명목으로 등록 및 납부를 하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1년마다 자동차 등록과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또 3개월마다 운전시험과 등록증, 자동차 쉐넨비, 소화기 등을 서류만 갱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비용뿐만 아니라, 많은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저런 이유들로 물가 폭등, 환율은 제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월급은 여전히 수년째 동결이고, 정부의 공무원도 여전히 그 작은 월급도 여러 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수단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아연실색하며 주저앉아 있을 서민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이러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남수단 정부가 나라 전반을 잘 관리하고, 속히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필요를 돌아보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축복해주신 많은 자원을 바르게 사용하여 모든 백성이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이러한 때에 교회가 복음의 진리로 빛과 소금이 되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구두담기 아저씨는 하루 일당 1,000SSP~2,000SSP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앉아서 보냅니다. 어느 날은 빈손으로 돌아가기도 한답니다. 제가 거주하는 SIL컴파운드 근처에 나일 페트를 회사 본부 빌딩이 세워지고 그 앞에 아스팔트가 깔렸습니다. 남수단은 2011년 수단에서 분리 독립이후 수도 한복판이라도 도로의 변화가 거의 없이 차량 증가로 혼잡하고, 여전히 흙길이 많아 여느 나라의 수도의 모습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건물들도 세워지고, 2020년 이후 전기도 생기고 많이 발전한 모습입니다. 국민들은 공용어가 영어이지만, 여전히 수단 아

랍문화와 아랍어가 주요 소통 수단이 되고 있고, 수단에서 유스하우스 출신 대학생들이 지금은 각각 그 위치를 차지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니 대학생 선교사역이 얼마나 중요인지 보게 됩니다. 24년 전 충현교회 파송 선교사 시절 수단에서 함께 사역했던 유스하우스 청년들 아브라함(변호사,의사), 데이빗 땡(정치학박사,정부관료), 로마노(비숍), 제이콥(농업), 피터 목사(교회)등이 수도 주바에 있어서 집에 초대하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구두담기 아저씨

이발소

나일페트롤회사 본부

옛 수단사역자들(충현교회시절)

### 이집트 방문

수단의 내전 발발 이후 많은 수단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고, 그중에 무슬림 친구들과 교회사역자들도 있었고, 또 이집트에서 수단사역을 하는 귀하신 선교사님도 만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이집트에서 수단인대상 BEE Korea 사역과 이집트 현지인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돌아볼 겸 남수단을 방문했던 장사라 선교사님과 함께 지난 1월 2일~12일까지 이집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이집트오면 사우디에서 만나러 오겠다던 **마마 아파프가 제가 오기 전 10일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셔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단에서 엄마처럼 늘 챙겨주고, 엄마가 수단 방문하셨을 때에 음식을 준비해와서 엄마를 섬겨주셨고,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늘 음식을 준비해서 섬겨주셨던 분이셨었는데, 수단 추방이후 10년만에 가장 그리웠던 마마 아파프를 만나겠다 했는데....그리운 수단은 이제 내전으로 완전 초토화 되었고, 수단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친구들, 사역자들은 이집트와 주변국에서 난민으로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단친구 누루와 그 가족들

친구 하딜과 그 가족들

돌아가신 마마 아파푸 가족 조문



친구 므나

므나의 선물

므나의 딸들(사라와 자녀들, 라위아 자녀들)



이집트 수단성공회목사부부 전 수단장로회 총회장 부부 수단사역자 바바리와 나갈루디 그리운 옛 수단 동료들  
 난민으로 지내는 이 시간을 통해 수단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사역자들은 더욱 주님안에서 헌신되고 강건한 주님의 일군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 속히 수단의 내전이 그치고 다시 회복, 재건, 치유의 시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 BEE KOREA 성경연장교육 사역

전도와 제자양육1&2 세미나와 인도자과정 세미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자립으로 하는 DPM과정과 DCL과정을 같이 하는 것은 사실상 성공회에서 부담이 많이 될 터인데 성공회 총감독(ArchBishop) 저스틴 목사님께서 걱정 말고 시작하라고 해주셔서 첫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4/3~5일에 이집트에서 수단 사역자 대상 갈라디아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고, 이후에 박은형 BEE 아프리카 지부장님과 함께 이집트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현지교회 대상 BEE사역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이집트에서 수단 사역을 하시는 김 선생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수단 인도자 바바리와 수단 사역자 나갈루디와 함께 애써서 준비해 주고 계셔서 많이 감사가 됩니다.



1/29-2/3 전도와 제자양육 세미나

2/12-17 인도자과정 세미나

2/12-17 인도자과정 세미나

그리고 5월 13일~17일까지 DCL과정 2번째 세미나를 위해 케냐 윤경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세미나를 해주실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계획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베풀어 주셔서 귀한 주님의 일군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 세계코이노니아 선교회(WKM) 대학생 선교 유재덕 목사님 방문(2/19~24)

남수단에 저의 사역을 위해 처음으로 방문해주신 유재덕 목사님! 충현교회 청년부시절 제가 새신자로 있을 때에 조장으로 섬겨주셨던 목사님! 이후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을 아주 오랜만에 만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의 주보에 이미 저의 이름을 후원 선교사로 기록해 놓으시고 오랜 동안 기도해오셨던 귀하신 목사님! 대학생 선교에 비전을 갖고 2년전부터 함께 남수단에 대학생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방문하셔서 집회를 갖고 대학교를 방문하며 사역에 힘을 실어주셨고, 저의 사역터도 방문하여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집회를 너무나 아름답게 잘 마치고 모두가 은혜받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갔고, 대학생 선교사역에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내년엔 청년들과 함께 다시 오시기를 계획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많이 됩니다.



컨퍼런스 찬양의 시간

강의 통역

유재덕 목사님 축복기도

컨퍼런스를 마치고



주바대학생들과 식탁의 교제

아픈 학생을 위한 기도

캐세리장로교산하유치원방문

캐세리장로교회 지도자훈련

## 더 멋진 세상

### 우물 사역

남수단은 수도 한 복판에도 물탱크 트럭이 물을 실어 집집마다 판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늘 상 봅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트럭에 담아 거리를 누비며 판매하는 이 물 트럭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은혜로 더 멋진 세상을 통하여 남수단에 우물을 파서 마을 주민들의 피곤한 삶에 물줄기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자발테만 과괴마을에 있는 AIC 교회에 우물15호를 나잉마을에 있는 성공회 교회에 우물16호를 파서 온 마을이 교회를 중심으로 물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남수단 수도 주바 안에도 너무나 많은 곳에 물이 필요합니다. 빈곤한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수단 국민들에게 삶에서 가장 필요한 물까지도 구입해야 하니 그 부담뿐만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남수단에 필요한 우물들이 더 많이 설치되기를 기도합니다.



물 장사 트럭

우물 공사

15호우물 과괴마을 AIC교회

16호우물 나잉마을 성공회교회

또한 여성사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과괴마을 AIC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1달여 간의 준비와 주님의 은혜로 건축자와 계약을 했고, 이제 곧 건축이 시작

될 것입니다. 5월이면 우기철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벌써부터 비가 이따금씩 내립니다. 도로가 닳여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건축자재를 옮기거나, 건축하는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하게 건축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기를 기도합니다.**

**청년 돈 다니엘 에게 의료지원**

제가 거주하는 SIL컴파운드에서 근무하며 늘 친절한 다니엘의 큰 아들 돈 다니엘 청년이 성탄 이브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상대편 자동차 차바퀴가 오른발 종아리를 밟고 지나가 종아리 뼈와 살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1,2 차 받고 고통스런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으며, 뼈를 이식할 재료를 인도에서 긴급 조달하여 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수술비 마련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만일 수술을 못하면 돈은 다리를 잃을 수 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더 멋진 세상에서 의료지원을 해주셔서 지난 2월 말에 3차 수술을 받았고, 4월에 4차 수술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니엘과 그 아들 돈을 사랑하시사 은혜를 베푸셔서 슬픔과 고통에 있는 청년과 그 가정을 돌아보아 긍휼베풀어주셨습니다. 4차수술과 그 이후의 재활의 모든 과정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두발로 걷고 뛰고, 정상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멋진 세상을 통해 고통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차수술후 상처소독(12/23-2/27)

2/27 3차수술 후

현재 4차 수술예정

**장학생(웨이메이커와 세브란스병원선교회)**

임마누엘과 줄리아는 웨이메이커를 통하여 학비 및 형제들의 학비와 생활의 필요까지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글로리아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유치원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여 이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이들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임마누엘(초등 5학년)

줄리아 초등 7학년

유치원 졸업한 글로리아

## 코이노니아(WKM) 대학생 선교사역

주바대학 남자기숙사에서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로케와 세이드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 시작한 첫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모두 다 손을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백명이 살고 있는 이 기숙사에 펌프가 고장나서 매일 물을 사서 마시고 사용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물을 고치려면 좀 큰 비용이 드는데, 주님께서 공급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자 기숙사처럼 함께 앉아서 예배할 의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바대학 여자기숙사에서도 매주 월요일 어후 5시에 모이고 있고 졸업생 플로라가 돕고 있습니다.

로케와 세이드, 플로라가 이 사역에 헌신되어 기뻐이되는 일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요일에는 스타포드대학에서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Upper Nile대학도 곧 모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대학생 선교사역을 통해 남수단의 미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바대학 남자기숙사 예배

주바대학 여자기숙사 예배

스타포드대학 모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국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늘 바람 불어 주시사 거짓과 가증함과 속됨으로 덮여 있는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사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유롭게 복음 들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를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시는 귀한 동역자님들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가슴에 안고,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 모시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

2024년 3월 28일

멀리 검은 땅에서 정은희 선교사 올림